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음 1월 18일) 제22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확보 시동

전북도, 송하진 지사 주재 신규사업 발굴 전략 보고회

신규, 434건 7751억 발굴 계속, 689건 7조890억 요구 총 1123건 7조8641억 잠정 내달 말까지 추가 발굴키로

전북도는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을 목표로 전북 대도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0년 신규사업 3차 발굴 및 국가예산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확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여건이 녹록지가 않을 전망에 따라 의미 있는 신규사업,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상황으로 2020년 국가예산 요구건수를 1,123건 7조 8,641억원(신규 434건 7,751, 계속 689건 70,890)으로 잠정 확정했다.

그러나, 국가예산 확보여건은 전북도 국가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정부의 SOC,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정부예산 편성 투자 축소와, 2020년도부터 균특 포괄보조사업 지역자율계정 3,500억원 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며, 계속사업중 금년도에 구시포 국가어항 등 199건 3,332억원 사업이 종료되고, 2020년 사업 만료 도래로 102건 2,357억원 감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국책사업포럼 및 전북연,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434건 7,751억원 발굴하였으며, 부처 실링 배정 이전인 3월까지 추가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계속사업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시기를 앞당긴 결과 금년보다 43건 2,097억원 증가한 689건 7조 890억원 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북도는 2년 연속 7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정치권 및 시군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기재부에서 중기사업 심의(2.15 ~ 3월말)가 진행 중임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이 중기사업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사무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활동 추진중에 있으며, 부처 예산 편성에 대응하기 위해 3월중에 국가예산 전체 사업에 대해 사전 설명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100대 핵심 타깃 사업 중심으로 지휘부 주요부처 장차관, 국장 면담을 집중 전개 할 계획이다.

또한, 3월 6일 도내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국가사업 관심사항 의견교환과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3~4월중에 주요 정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과 시군과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도와 시·군과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그동안 구축된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와! 졸업이다!" 우석대학교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1일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일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졸업생이 후배들에게 헹가래를 받으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2000억 투자… 일진제강, 임실군과 농공단지 분양 계약

강관 전문 업체인 일진제강이 임실 제2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진제강 이교진 사장과 심민 임실군수는 21일 군청에서 제2 농공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임실 제2 농공단지는 부지 33만578㎡(10만평) 규모로 예산 320억원을 투자해 조성됐다. 이 중 일진제강은 공공용지를 제외한 26만4400㎡(8만평)을 분양받았다.

일진제강은 부품 소재 전문 일진그룹의 계열사로 1982년 설립된 강관 전문 기업으로 수원사업장과 전주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앞서 2011년 임실 제1 농공단지 13만2231㎡(4만평)에 1300여억원을 들여 제1 공장을 지은 뒤 심리스 강관 등을 생산, 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일진제강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임실에 200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로 300여 명을 채용키로 해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임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협력 업체들의 대규모 유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아울러 투자 규모도 제1 농공단지보다 700억원 가량 더 늘어나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일진제강이 임실에 완전히 둥지를 틀면서 인구 증가와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공헌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임실=진홍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실패에 공감 도전에 응원

6월 '실패박람회' 전주서 시, 행안부와 협약 체결

시민들이 다양한 실패경험을 자본으로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2019 실패박람회'가 오는 6월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21일 정부서울청사 CS룸에서 행정안전부와 '2019 실패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올해는 전주시를 비롯해 강원과 대구, 대전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되는 지역박람회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종합박람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협약식에서 △행사 공동개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공동홍보 △제도개선사항 발굴·개선 협력 △재도전 프로그램 연계 등 협력기반 마련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고 했다.

시는 '실패해도 괜찮아'을 주제로 박람회를 준비해 시민들의 다양한 실패경험을 축적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보낼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시민들의 재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지원책 마련과 제도개선의 노력도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전주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문화·전시·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해 청장년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낼 수 있는 박람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남원 유곡·두락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순조

지난달 문화재청 잠정목록, 내년 1월 최종 신청서 제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이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1일 전북도는 문화재청에서 남원 두락리와 유곡리 고분군(사적 제542호)이 지난달 28일자로 가야고분군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되었다고 밝혔다.

'가야고분군'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542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합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의 7개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오는 3월 예정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에서 등재 후보로 선정이 되면 7월경 최종 등재대상 선정을 거쳐 2020년 1월 세계유산센터에 최종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21년 남원고분군까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올해부터 3년 연속 세계유산 등재의 쾌거를 올리게 된다.

전북도에는 고창 고인돌유적(2000년),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가 이미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앞으로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2019년)을 시작으로, 서남해안 갯벌(고창 갯벌/2020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2021년)까지 3년연속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청·남원시와 2021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전문가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